2024.3.10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구원과 복음의 최고망대 요한복음
-복음으로 여는 요한복음-

출애굽기 3:11-14, 요한복음 3:16

정윤돈 목사님

*** 출3:11-14**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모든 것에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부터 일주일간 댈러스에서 RU박사원 강의를 한다. 유럽과 전 세계 렘넌트들과 다문화 사람들이 RU훈련을 받고 있다. 미국에는 벌써 렘넌트출신의 교수와 전문인들도 많다. 세상적으로 숫자는 얼마되지 않지만 성경에는 소수의 렘넌트들이 세월이 지나 그 나라와 국가를 움직였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결론난 한 사람이 중요하다. 댈러스에 가는 게 제게는 응답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에 대한 서적을 읽으면서 댈러스신학교를 나온 교수님들의 책을 보고 '나중에 댈러스신학교에 가야지'하는 기도제목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닫으셨다. 이번에 댈러스에 있는 교회가 건물을 RU박사원 건물로 내어 주셨다. 나중에 보니까 가려고 했던 댈러스신학교가 성경을 잘 번역하지만 장로교처럼 개혁주의신학이 없으니까 급격하게 세대주의로 빠졌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개혁주의신학을 주신 게 울타리가 되어 소중한 복음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치우쳐서 극단주의로 흐르는 신학을 가지고 있고, 복음가진 교회와 렘넌트와 전문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현장에 빛을 발해서 그 사람들과 신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줘야겠다. 구약을 잘 아는데 복음을 모르는 게 유대인과 비슷하다. 우리는 다 없고 복음만 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나님은 제게 기도제목과 언약을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성취하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있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에게 출애굽의 미션을 주셨다.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민족을 구하고자 할 때는 도망자로 광야에서 40년을 빙빙이 돌게 하셨는데 나이 많을 때 출애굽의 미션을 주셨다.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다가 응답 주시면 도전해라. 급하게 되는 건 없다. 스마트폰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해야 한다. 같이 운동하는 열다섯 살짜리 친구가 대회에서 우승했는데, 금방 한 게 아니라 기저귀 차고 스키를 탄 친구다. 경력이 15년이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에서 기술을 다 배우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버리게 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야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이다.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버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전부 맡겨야 한다. 문이 열리면 가야 한다. 그 전까지 끊임없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실력과 인간관계와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있다, 존재한다.'라는 뜻의 '하야'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 이 '하야'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에고 에이미'이다. '하야'는 동사다. '있다'는 뜻이다. 거기서 '그 사람은 존재한다.'는 뜻의 3인칭 동사 '여호와'가 나왔다. 과거, 현재, 미래 변치 않고 존재하는 그분, 여호와를 설명하고 있다. 모든 이름이 명사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에고 에이미' 즉,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오신 절대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의 엑기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 구절만 정확하게 알면 훈련받고 응답받고 전도하는 게 다 되게 되어있다. 저는 복음이 좋으니까 다 했다. 누가 뭐 하라고 하면 하고 교회에서 안 하면 안 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다. 모든 사업과 일도 마찬가지다. 마음과 영혼에 담기면 다 알아서 한다. 내가 먹고 살고 할 때는 다 하려고 하는데 믿음과 전도에는 관심도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으로 묵상되기 바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목사님은 '이처럼' 한 단어를 가지고 2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더라.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더럽고 남 탓하고 나만 안다. 십자가는 그게 아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당신이 해결하셨다. 여러분도 남 탓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이처럼 지시기 바란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스스로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대속,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영원한 천국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말은 노예의 자녀가 노예, 귀족의 자녀가 귀족인 것처럼 신분을 말한다. 소는 소를 낳고 개는 개를 낳는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적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지도 않았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고서 붓을 새로 빨든가 목욕을 하고 다시 쓰든가 붓을 부러뜨리고 새 붓으로 썼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다. 저도 저의 아버지의 성함을 '정 영자 걸자'라고 부르는데 유대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 이름 안에 모든 신성과 능력과 존경과 경외가 있는 것이다.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란다. 그 아들을 보내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인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건 신분을 이야기한다. 유일한 독생자, 그분이 오직 예수시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 중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의 내용이 가장 명확하게 기록된 최고의 성경이다. 사복음서에서 제일 읽기 쉬운 책이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다. 오랫동안 복음서를 묵상하다가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일 쉽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명확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본체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악기와 탁구와 캘리그라피를 할 때 다 하고 싶은데 인생이 너무 짧다고 느낀다.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 어떤 분이 천국은 모든 관광지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곳이라고 하셨다. 천국은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리는 곳이다.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다.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렘넌트들이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응답받고 멋지게 하셔야 한다. 그러면서 놀지만 말고 전도 좀 해라. 생명 살려야 한다. 그건 영원토록 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상급이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해야 한다.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다. 마음이라도 먹으면 된다. 세계복음화와 선교, 전도를 마음먹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두셨다. 생각하시기 바란다. 진짜 전도하며 제자 찾고 복음화 하도록, 세계 살리도록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1. 요한복음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7가지 기적과 표적이고, 두 번째에서는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표현이다.

(1) 첫째로 먼저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특별한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②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다. 만나지도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 고치셨다. ③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 ④ 6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다. ⑤ 6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물 위를 걸으셨다. ⑥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에 보면 소경의 눈도 뜨게 하셨다. ⑦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도 살려 주셨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러한 모든 기적을 행한 사람은 없다. 과거에 '유리 겔라'라고 있었다. 초능력을 보이는 사람이었다. 어떤 부자가 진짜 초능력을 보이면 10억을 주겠다고 하고는 유리 겔라의 모든 트릭을 밝혀냈다. 유리 겔라는 들킨 후 스스로를 '엔터테이너'라고 말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은 없다. 계속적으로 기적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다. 왜 이걸 보여주실까?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삶에서 주인 되실 때 우리 삶 속에 이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신다. 제게는 RU가 댈러스에 세워지는 게 기적이다. 제 현장에서 만난 렘넌트가 기적으로 보인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기적을 행하셨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 믿는다.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임을 보여주셨다.

(2)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는 일곱 번의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있다. 이 뜻은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표현이다. 이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다. '나는 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이고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다. 존재함을 강조하기 위해 두 번 반복했다. 이 문장을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해석하였다. 이 단어 '하야'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유래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렸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의도적으로 '에고 에이미'라는 문구를 사용하셨다.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문장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① "나는 생명의 떡이다 (Ἐγώ εἰμι ὁ ἄρτος τῆς ζωῆς)" ② "나는 세상의 빛이다 (Ἐγώ εἰμι 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 ③ "나는 양의 문이다 (Ἐγώ εἰμι ἡ θύρα τῶν προβάτων)" ④ "나는 선한 목자이다 (Ἐγώ εἰμι ὁ ποιμὴν ὁ καλὸς)" 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Ἐγώ εἰμι ἡ ἀνάστασις καὶ ἡ ζωή·)" 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Ἐγώ εἰμι ἡ ὁδὸς καὶ ἡ ἀλήθεια καὶ ἡ ζωή·)" ⑦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Ἐγώ εἰμι ἡ ἄμπελος ἡ ἀληθινή,)" 유대인들이 이 문장들을 보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의심이 많은 도마가 최고의 고백을 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다. 이제까지 도마는 '에고 에이미' 하실 때 하나님임을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그를 보며 하나님임을 고백했다. 우리들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한다. 그때 모든 응답이 다 열린다. 이때 우리는 무속, 점술, 우상과 운명, 사주, 팔자, 시, 날, 방향과 여러 가지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다. 파묘는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이장도 아무 때나 해도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결론이 안 난 사람은 반드시 재앙이 온다. 귀신이 제사 안 지내면 괴롭힌다. 조상으로 속여서 역사한다. 우리는 귀신을 이길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으시기 바란다. 두려울 게 없다. 염려, 근심, 걱정할 시간 없다. 다락방에서 훈련 10년 이하면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선교사도 10년 되면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말씀을 잘 배우셔서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해방과 자유다. 완전 진리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운명, 사주, 팔자에 매여 있는 그들을 살리시기 바란다.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 하는 것이 아니다. 10년 이상 배우고 훈련받을 때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복음이다.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다.

2.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요절을 말씀드리겠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요절들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원과 복음의 절대망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요절들만 외워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다. 이 요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을 때 더 이해가 잘 된다.

(2) 다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을 때다. 왜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흑암에게 계속 넘어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이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워할 때 미워하고 남 탓할 때 남 탓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귀자녀처럼 살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참된 성공자다. 믿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된다.

(3) 또 요한복음 3장 3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던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다.

(4) 다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다 지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물어보기 전에 답을 말씀하셨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구원의 복음을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몰랐다. 그래서 그는 종교생활을 했었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다. 우리도 나의 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다. 바리새인은 정죄만 하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다.

(5) 다음으로는 요한복음 5장 24절이다. 이 요절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보다 더 확실한 구원에 대한 요절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란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6) 다음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말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명확하게 자신을 구원자로 표현한 사람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다. 이만희나 이단들처럼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진실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지 않는다.

(7)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6장 24절에서는 기도응답의 방법에 대한 말씀도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나는 왜 응답되지 않을까? 정확히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영혼까지 스며들기를 바란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가보면 응답이 되어있다. 응답이 너무 많아서 기도 안하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은 누구한테 말 못한다. 표현도 어렵고 오해된다. 그게 이면계약이고 비밀이다. 그 언약과 응답이 없으면 언약의 여정을 걷지 못한다. 이면계약이 있어야 재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안 믿는다는 뜻이다.

(8)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사탄에 대한 정체도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와 사탄이 주인된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분쟁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시고 능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9)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셨다. 그 말씀은 후대 렘넌트를 보호하고 키우라는 언약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나오는 세 번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 다르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물어보셨다. 베드로는 제가 '필레오'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대답했다. 예수님이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아게페'하느냐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제가 '필레오'하시는 줄아시나이다. 대답했다. 예수님이 세 번째에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제가 '필레오'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대답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사람들을 '아가페' 할 수 없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내 양을 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미션을 주셨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7이정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이정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로마이다. 이제 7.7.7기도문을 외워질 때까지 읽겠다.

"①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② 오늘 어디 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③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④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⑤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⑥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⑦ 로마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와 구원의 말씀을 잘 정리하여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 귀한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와 후대와 교단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통해 세계 살리는 복음이 정리되고 증거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